

International Day for Biodiversity

22 May 2010, Myung-dong, Seoul

<http://www.biodiversity2010.net/bbs/view.asp?TbName=notice&Mode=V&seq=40>

(English below)

명동에서 펼친 생물다양성의 날 기념 퍼포먼스

5월 22일 세계 생물다양성의 날을 기념하여 ‘초록 지구에게 하고픈 말, 엽서로 띄우다’ 행사와 생물다양성의 해 메시지를 전하는 퍼포먼스가 서울 명동에서 열렸다.

유네스코한국위원회(사무총장 전택수)와 한국과학창의재단(이사장 정윤)은 이날 오후 6시 명동예술극장 앞마당에서 ‘생물다양성은 생명. 생물다양성은 우리의 삶’이라는 메시지를 전하는 퍼포먼스를 펼쳤다(사진 첨부). 유네스코 협동학교 학생 약 90명이 연출한 이날 퍼포먼스는 생물다양성을 상징하는 다양한 동물, 식물과 물, 구름, 비, 눈, 유전자 등의 이미지를 들고 생물다양성의 해 메시지인 ‘생물다양성은 생명, 생물다양성은 우리의 삶’이란 표어를 제창하는 내용으로 꾸며졌다.

한편 이에 앞서 오후 2시부터 진행된 엽서 띄우기 행사에서는 명동을 오가는 많은 시민들이 생물다양성을 지키고자 하는 염원을 엽서에 적어 줄어 거는 활동에 참여했다. 유네스코한국위원회와 한국과학창의재단이 주최하는 생물다양성의 해 기념 유네스코 세계 순회 사진전도 명동예술극장 앞마당에서 이날부터 다음주 월요일까지 열린다.





Korean National Commission for UNESCO, Korea Foundation for the Advancement of science and Creativity(KOFAC)

90 students of UNESCO Associated School in Korea celebrated the International Day for Biodiversity in downtown Seoul. They carried various images of flora and fauna, clouds, water, rain, snow, genetic resources and delivered the message of International Year of Biodiversity: Biodiversity is Life, Biodiversity is Our Life. Citizens were also invited to write postcards to the Green Earth with their wish to protect biodiversity.

Photos: <http://www.unesco.or.kr/eng/front/main/>